

광주시청 이재성, '한국新 합작' 아시아육상 사상 첫 우승

서민준·조엘진·이준혁과 호흡 남400m 계주 38초49, 0.02초 단축 강다슬, 이은빈·김소은·김다은과 여400m 계주 11년 만에 한국新

광주시청 육상팀 이재성과 강다슬이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각각 한국 육상 남·여 400m 계주 신기록을 합작했다.

이재성은 지난달 31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준혁(국군체육부대)과 팀을 이뤄 38초49로 우승했다.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한국 남자 400m 계주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이들은 지난 11일 광주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 남자 400m 계주 패자부활전에서 기록한 38초51의 한국 신기록을 20일 만에 0.02초 단축했다.

또한 2023년 방콕대회 우승팀 태국의 38초55보다 0.06초 빠른 대회신기록도 작성했다.

한국은 이 종목에서 그동안 1981년, 1983년, 1985년, 2023년 총 4차례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나, 금메달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37초43의 기록을 보유한 일본과 37초79의 중국에 비해 아직은 부족하지만 최근 쏠려진 한국 남자 계주팀은 과학적인 시스템을 더한 강도 높은 훈련과 경험·패기가 조화를 이룬 팀워크에 국제대회 실전을 거듭하며 경기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2023 방콕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 38초99로 3위에 올라 1985년 자카르타 대회 이후 38년 만에 아시아선수권 동메달을 따낸 한국 남자 계주팀은 그해 10월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이정태, 김국영, 이재성, 고승환이 38초74의 한국신기록 타이 기록으로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37년 만에 아시안게임 메달을 수확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6월 전국종별선수권에서는 이시문, 김국영, 이용문, 고승환이 38초68의 한국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지난달 광주서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 예선에서 서민준, 조엘진, 이재성, 고승환이 38초56의 신기록을 세웠고, 다음날 38초51로 기록을 더 단축했다.

그리고 구미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치며 38초5의 벽도 허물었다.

한국 육상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준혁과 이재성은 24살이며 서민준은 21살, 마디 조엘진은 19살이다.

남자 100m에서 선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들 4인방이 개인 경기력을 끌어 올리고, 하나된 팀워크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면 올림픽 출전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여 400m 계주에서 나란히 한국신기록을 합작한 이재성과 강다슬이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승석 광주시청 육상팀 코치,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 이재성, 강다슬, 김재대 광주시육상연맹 전무이사. <광주시육상연맹 제공>

전략 종목으로의 가능성도 커보인다.

한편 광주시청 강다슬은 이은빈(해남군청), 김소은, 김다은(이상 가평군청)과 팀을 이뤄 출전한 여자 400m 계주 결선에서 44초45로 4위를 했다.

비록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2014년 인

천 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44초00을 11년 만에 0.15초 앞당긴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한국 남자 단거리 희망' 고승환(광주시청)은 대회 남자 200m 결선에 출전해 20초72의 기록을 남겨 6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전날 남자 200m 준결선 1주에서 20초82의 기록

으로 2위를 차지하며 전체 3위로 결선에 오른 고승환은 지난해 작성한 개인 최고 기록(20초49)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고승환은 국내 무대 200m에서만 대회 신기록을 6회나 작성한 한국 남자 단거리 간판 선수다. /박희중 기자

'별들의 잔치' 주인공은 누구?



2025 KBO 올스타 '베스트12' 팬 투표, 오늘 '스타트'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가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KBO는 투표 시작과 함께 베스트 12 후보 120명을 공개하며 팬 투표를 오는 22일 오후 2시까지

총 21일간 실시한다.

팬 투표는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 SOL뱅크 앱 그리고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앱 등 총 3개의 투표 페이지에서 1일 1회씩 총 3번 참여할 수 있다.

KBO는 3개의 투표 페이지 총합 투표수를 취합해 9일과 16일 두차례의 중간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6월 중 진행 예정인 선수단 투표에는 30%의 비중을 부여하고, 팬 투표 70%와 합산해 최종 집계된다. 올스타 베스트 12 최종 결과는 23일에 발표된다.

KBO는 팬 투표에 참여하는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준비했다.

KBO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매일 투표에 참여한 팬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8명을 선정한다. /주홍철 기자

순천미래과학고 유도 박예지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 은메달

순천미래과학고 박예지(사진)가 제28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를 겸해 열린 아시아-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예지는 지난달 29-30일 경북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52kg에 출전해 정정환 대학부 선배들을 연달아 제치고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전국 최고 권위의 청소년 대회로 고등부와 대학부가 함께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업어치기가 주특기인 박예지는 16강에서 김도경(용인대 1년), 8강에서 나선영(선문대 1년)을 모두 한판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서도 김민경(한국체육대 2년)에 질반승을 거두며 결승 무대에 진출한 박예지는 결승에서 백지호(주산산업고 3년)에 막혀



금메달을 아쉽게 놓쳤다.

올해 정식 학교운동부로 출범한 순천미래과학고 유도부는 창단 첫 해부터 전국 무대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잠재기를 겪던

전남 유도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 받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순천미래과학고 유도부의 성과는 연계 육성 가능성을 증명해 준 사례로 전남 유도의 밝은 희망을 지켰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유망주 발굴과 지속적인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이강인의 PSG, 인터밀란 5-0 완파하고 UCL 첫 우승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왼쪽)과 선수단이 1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인터 밀란을 5-0으로 완파한 뒤 시상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이강인은 주전경쟁에서 밀려 이 날 결승 무대에서 뛰지는 못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2007-2008시즌 대회에서 우승한 박지성에게 이어 한국인으로는 17년 만에 UCL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한국 선수로 기록되는 영광을 누렸다. /EPA-연합뉴스

한국 축구, U-20 월드컵 우크라이나·파라과이·파나마와 한 조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9월27일-10월19일·칠레) 조별리그에서 2019년 대회 결승에서 맞붙었던 우크라이나와 재대결을 펼친다.

FIFA는 지난달 3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2025 FIFA U-20 월드컵 조 추첨 행사를 열었다.

조 추첨 결과 한국은 조별리그 B조에서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파나마와 16강 진출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2025 FIFA U-20 월드컵에는 24개 팀이 참가해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펼친

다.

한국의 U-20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은 2019년 대회에서 작성한 준우승이다.

이강원 감독이 지휘하는 U-20 대표팀은 지난 2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에서 4강에 진출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한국은 2019년 대회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에 1-3으로 패해 역대 첫 우승의 기회를 놓쳤다.

한국은 6년 만에 U-20 월드컵 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다시 만나 자존심 회복에 나서게



됐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U-20 대표팀 상대 전적에선 1승 2패로 뒤지고 있다.

이강원호는 현지시간으로 9월 27일 오후 5시 우크라이나와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시작으로 9월30일 오후 5시 파라과이, 10월3일 오후 5시 파나마와 잇달아 맞붙는다. /박희중 기자

김현성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 위촉

김현성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지난달 30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는 학계(특수체육 전공 교수 및 교사), 중앙 및 시도 가맹단체 실무자 등 장애인생활체육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됐다.

15인의 생활체육위원들 중 시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는 김현성 사무처장이 유일하며, 시도 장애인생활체육회의 목소리를 대

표하는 역할로 신규 위촉됐다.

특히 김현성 사무처장은 2010년 광주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2019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생활체육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성 사무처장은 "위원 활동 간 아울러 새롭게 시범 운영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과 장애인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목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